

7월 엔지니어상 한화 권기영 차장

과학기술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함께 매달 선정하는 <이달의 엔지니어상> 7월 수상자로 한화석유화학 권기영 차장과 청우하이드로 안상구 대표를 각각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대기업 부문 수상자인 권기영 차장은 고부가가치 특수 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EVA(Ethylene Vinyl Acetate)를 개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중소기업 부문 수상자로 뽑힌 안상구 대표는 발전소와 제철소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특수펌프를 국산화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뽑혔다.

이달의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 및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 엔지니어를 발굴·포상하는 제도로 2002년 7월부터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엔지니어 각 1인을 선정해 과학기술부 부총리상과 트로피, 포상금 1000만원을 수여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7/12>